

#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 이제 영흥입니다!’**

## **- 친환경 특별섬 선언 -**

**‘21. 3. 4. [목] 11:00 공감회의실**

기안: 이어진 (평가담당관/3314)

검토: 서인석 (평가담당관/3311)

수정: -

### **□ 자체매립지 최종 후보지 검토 결과 발표**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지난해 11월,  
인천 에코랜드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예비 후보지 발표 이후,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논란과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정치논리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인천 혼자 밀어붙일 수도,  
밀어붙여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을지 더욱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 긴 고민과 검토 끝에 오늘,  
자체매립지 후보지 검토 결과와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인천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예비후보지 5곳에 대해  
4개 조건,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발표 이후 불거진 공공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시는 그 뜻을 존중해 두 달 반 동안  
기다림과 검토의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 선갑도 현장을 점검한 것은 물론,  
옹진군과 토지주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 지난달 24일 특위에서는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해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최종 권고했고,  
그 제안에 따라 일주일 간  
세심하고 꼼꼼하게 선갑도와 영흥도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선갑도 보다는 영흥도가  
후보지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우선 선갑도는 환경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법적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조성을 한다 해도 공사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조성 이후 해상운송이 불가피한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 등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일반적, 기술적 조건이 훨씬 뛰어난 영흥도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 **친환경 자체매립지, 인천 에코랜드**

-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6천여 영흥주민 여러분,
- 자체매립지 입지와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둔 답도, 염두에 둔 곳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항간에 떠도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부서 간 크로스 체크를 통해 거듭 거듭 점검했습니다.
- 영흥주민들께서 오랜 세월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석탄분진 등 비산먼지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맑은 하늘을 되찾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왜 우리냐, 또 환경 기피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거냐는 주민 여러분의 원망 어린 외침 또한 흘러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영흥 재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던 영흥을,

이제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친환경 특별섬으로 주목받는 영흥을 통해  
맑은 하늘을 되찾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 인천 에코랜드는  
국내 선진시설들의 장점만을 모아 만드는 시설입니다.
- 남양주에서는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장점을,  
청주에서는 지하매립에 더해 돔 형식 지붕을 씌워  
외부와 완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 내 집 앞에 두어도, 내 아이 곁에 두어도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누구나 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매립지와 그 주변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영흥 주민 뿐 아니라, 인천시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매립지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기본이고,  
주민이 원할 경우, 운영 자체를 주민에게 위탁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영흥은 이제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이 될 것입니다.

- 인천시는 반드시  
영흥도를 ‘친환경 특별섬’ 으로 만들 것입니다.  
맑은 하늘을 되찾고,  
모두에게 주목받는 새로운 도약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 □ **친환경 특별섬, 영흥**

- 인천시민 그리고 영흥주민 여러분,
- 오랜 세월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석탄분진은 배추밭을 뒤덮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권리마저 위협했습니다.
- 이제 그만 그 악몽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발판삼은 친환경 특별섬으로의 전환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 먼저 야적장에 돔부터 씌우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장의 석탄분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고,  
저희가 제안 드린 방식의 실질적 효과를 통해  
신뢰와 믿음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 물론 당연히 영흥화력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LNG전환 속도를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흥의 맑은 하늘부터 되찾겠습니다.
- 영흥 제2대교 또한 건설하겠습니다.

- 영흥도는 인천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섬이지만,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뱃길로 한 시간이나 떨어진  
외롭고 먼 섬이었습니다.
- 2000년대 들어 선재대교와 영흥대교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영흥 제2대교 건설을 통해  
인천 내륙에서 영흥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영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용역과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빠르게, 안전하게 영흥 제2대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영흥 주민 여러분!  
영흥을 특별하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모두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공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영흥에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영흥으로 향하겠습니다.

○ 주민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다리겠습니다.

□ **맺음말**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지금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기존 매립지 연장은 물론이고,

자체 매립지까지 더해 매립지가 두 개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지금 매립지를 계속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우려와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과연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걱정,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 그건 오랜 세월 누군가가 쌓아올린

‘사대적 열패의식’에 불과합니다.

주변적 존재로서의 인천,

수도권 변방으로서의 인천,

주체의식 없이 그저 따라 오기만 한 인천이라는 착각이 만든

패배의식일 뿐입니다.

○ 우리 시민들의 힘과 의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재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부터 당당히 보여 주겠다  
힘을 모으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  
힘의 논리가, 정치적 판단이,  
우리 인천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게 두지 않겠습니다.
- 우리 시민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의지를 믿고  
결심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들을 믿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 인천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환경특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